

영암군민속씨름단, 2관왕 달성

정남진 장흥장사씨름대회서 단체전·한라장사 달성 '꽤거' 차민수 생애 첫 한라장사...데뷔 3개월만 모래판 신데렐라 장성우(백두2위)·오창록(한라2위)·김진호(금강4위) 등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지난 3월 13일부터 전남 장흥군에서 열린 '정남진 장흥장사씨름대회'에서 단체전과 한라장사를 달성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차민수장사는 결승에서 같은 팀 동료이자 11차례 한라장사를 지낸 강력한 우승 후보 오창록 장사와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데뷔 3개월 만에 한라장사에 올라 또 한 명의 한라급의 스타 탄생을 알렸다.

대회 마지막날 단체전은 그야말로 영암군민속씨름단을 주인공으로 드라마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예선 첫 게임부터 대회 기간 동안 태백, 금강급 형제 장사를 배출한 우승 후보 수원특례시청을 만나 결승전을 방불케 한 접전 끝에 4:3으로 진땀을 흘렸다. 이후 8강에서 연수구청을 4:2, 준결승에서는 21년도 왕중왕전 최강 단 태안군청을 4:3으로 역전승을 거둬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는 또 다른 우승 후보 울주군청과도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치열한 경기였으나 우승정부 오창록 장사의 활약은 막을 수 없었고, 매 경기 끝까지 갔지만 결국 승자는 영암군민속씨름단이었다. 소속 선수 모두 함께 이룬 값진 승리였다.

이로써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총 46회 우승(장사 40회, 전국체전 금메달 2개, 단체전 4회)을 달성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고 씨름단임을 실력으로 증명하였다.

김기태 감독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장흥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 배출과 더불어 전제급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다. 무엇보다도 소속 선수 모두 함께 노력하여 이룬 단체전 승리는 선수단 사기 향상과 앞으로 대회에도 큰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우상혁이 20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스타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바를 뛰어넘고 있다.

‘또 해냈다’ 우상혁,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금 획득...한국 최초 메달

한국기록 경신은 '다음 기회에'

‘강심장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금메달을 따내며 다시 한 번 역사를 개척했다.

우상혁은 20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스타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1차 시기에 뛰어넘었다.

다른 선수들이 모두 2m34를 실패했고, 우상혁은 기회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우상혁은 개인 최고 기록이자 한국기록인 2m36보다 1cm 높은 2m37에 도전장을 던졌으나 1, 2차 시기에 실패한 후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우상혁은 한국 선수 최초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세계실내육상선수권은 2년에 한 번 열린다. 당초 2020년 열릴 예정이던 중국 난징 대회가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2023년 3월로 연기되면서 세계실내육상선수권은 2018년 영국 버밍엄 대회 이후 4년 만에 열렸다.

한국 선수의 이 대회 종전 최고 성적은 손주일이 1995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 남자 400m에서 기록한 59위다.

우상혁은 한국 최초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메달을 수확하는데 그치지 않고 메달색을 금빛으로 장식하는 기업을 토했다.

지난해 여름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또 다시 역사를 써냈다.

우상혁은 도쿄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의 당시 한국기록을 작성, 최종 4위에 올랐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 이진택이 세운 한국 육상 트랙·필드 선수의 올림픽 최고 성적인 8위를 훌쩍 뛰어넘었다.

우상혁은 지난해 7월 30일 도쿄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28을 기록, 9위에 올라 결선에 진출했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 결선에 나선 것도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남자 높이뛰기 이진택 이후 25년 만의 일이었다.

그는 8월 1일 열린 결선에서 당시 개인 최고 기록보다 2cm나 높은 2m33을 뛰어넘었고, 2m35까지 넘으면서 1997년 이진택이 세운 2m34의 종전 한국기록을 갈아치웠다.

우상혁은 이번 대회 남자 높이뛰기의 강력한 메달 후보로 거론됐다. 금메달 후보로도 손꼽혔다.

우상혁은 지난 2월 6일 체코 후스토페체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인도어(실내) 투어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개인 최고 기록이자 한국기록인 2m36을 뛰어넘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12명의 선수 가운데 우상혁의 개인 최고 기록은 지안마르코 탬베리(이탈리아·2m39)와 도널드 토머스(바하마·2m37)에 이어 3위였고, 시즌 최고 기록은 1위였다.

카드란 메달 기대에 부담을 느낄 법도 했지만, 강심장 우상혁은 기대에 부응했다.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메달을 획득해 새 역사를 창조했다.

2m20부터 시작한 우상혁은 1차 시기에 가뿐하게 성공했다. 2m24도 1차 시기에 넘은 우상혁은 양 손으로 'V'자를 그려보였다.

우상혁을 포함해 5명이 2m24를 1차 시기에 성공한 가운데 우상혁보다 개인 최고 기록이 높은 경쟁자 토머스는 2m24에서 1~3



우상혁이 20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스타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1위를 차지,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깨물고 있다.

차 시기를 내리 실패해 일찌감치 탈락했다. 또다른 경쟁자 탬베리는 2m24를 2차 시기에 넘었다.

2m28도 1차 시기에 여유있게 성공한 우상혁은 바를 넘은 후 포효하면서 기세를 끌어올렸다. 탬베리, 로이크 가슈(스위스), 해미시 커(뉴질랜드)가 우상혁과 함께 2m28을 1차 시기에 성공했다.

우기도 있었다. 2m28까지 우상혁을 포함해 6명의 선수가 살아남았다. 이들 6명은 모두 2m31을 1차 시기에 넘지 못했다.

2m31 2차 시기를 앞두고 포효하며 미소를 지어보인 우상혁은 바가 몸에 닿아 떨어지는 바람에 실패했다.

탬베리와 가슈, 커, 티아고 모라(브라질)는 2m31을 2차 시기에 성공했다. 뒤이어 2m31 3차 시기를 시도해야 하는 우상혁이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강심장은 흔들림이 없었다. 앞선 실패에도 우상혁은 위축되지 않고 바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우상혁은 위기를 넘긴 뒤 마음을 한층 다잡은 듯 했다. 2m34를 1차 시기에 뛰어넘었다. 바를 살짝 건들기는 했으나 성공이었다.

다른 4명의 선수가 모두 2m34를 1차 시기에 실패하면서 우상혁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우상혁을 제외한 4명의 선수는 1~3차 시기를 모두 실패했고, 우상혁의 우승이 확정됐다. 금메달이 확정된 뒤에도 우상혁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한국기록 경신을 향해 홀로 도전에 나섰다. 관중들의 박수 응원 속에 2m37 도전에 나선 우상혁은 1차 시기에 이어 2차 시기에 실패했다.

하지만 우상혁의 얼굴에는 미소가 여전했다. 우상혁은 2차 시기 실패 후 경기를 마무리하려는 듯 관중들에게 박수를 유도한 뒤 거수경례를 했다.

은메달은 가슈에게 돌아갔고, 탬베리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탬베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자 오른쪽 팔뚝 위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붙이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뉴스스

12·13호골 손흥민, 득점부문 공동 2위...모하메드 살라 다음

2골 모두 케인 도움...클럽팀·대표팀 통틀어 통산 200골 달성



토티엄 홉스퍼의 손흥민이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티엄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0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후반 43분 팀의 세 번째 골을 넣고 기쁘하고 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의 도움으로 리그 12,13호 골을 넣어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토티엄)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리그 득점부문 공동 2위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2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티엄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21~2022 EPL 30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토티엄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8일 에버턴전 이후 3경기 만에 터진 골로 리그 12호, 13호골이다.

2골을 보낸 손흥민은 득점부문 공동 2위로 올라섰다.

20골로 단독 선두에 있는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의 뒤를 이어 디오구 조타(리버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골과 도움을 합한 공격포인트에서도 리그 2위다.

손흥민은 13골 5도움으로 공격포인트 18개를 기록 중이다. 1위는 역시 살라로 20골 10도움으로 30개다.

손흥민의 팀 동료 해리 케인이 12골 5도움, 공격포인트 17개로 손흥민의 뒤를 이었다.

이날 손흥민이 기록한 2골은 모든 케인의 도움에서 시작했다. EPL 역대 최다 합작골 기록을 갈아치운 둘은 39골 합작으로 새 역사를 이었다.

또 손흥민은 성인 무대에서 통산 200골 고지에 올랐다. 클럽에서 170골, 국가대표팀에서 30골을 터뜨렸다.

2010~2011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데뷔한 손흥민은 함부르크 유니폼을 입고 20골, 레버쿠젠에서 29골을 기록했다.

2015~2016시즌 EPL에 진출해 토티엄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이날 2골로 통산 121골을 기록했다.

클럽에서 170골을 기록하는 동안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선 A매치 96경기에서 출전해 30골을 넣었다.

허웅, 3년 연속 프로농구 최고 인기선수 등극 할까?

프로농구 원주 DB의 허웅이 3년 연속 최고 인기선수로 등극할 수 있을까.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다음달 5일까지 통합 웹사이트를 통해 최고 인기 선수를 선정하는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포카리스웨트 인기상' 팬 투표를 진행한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시즌 올스타 팬 투표에서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운 허웅이 2019~2020, 2020~2021시즌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인기상에 도전한다.

많은 여성 팬을 끌고 다니는 허웅은 이번 시즌 49경기에 출전해 평균 16.4점 4.4어시스트로 데뷔 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투표는 KBL 등록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 1인당 1일 1회 참여할 수 있다. 1회당 총 2명에게 투표 가능하다. 단, 동일 소속팀 선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KBL은 투표에 참여한 팬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뉴스스

세 차례 음주운전과 기회, 강정호 복귀 찬반양론

키움 히어로즈의 2022시즌 시작은 온통 강정호(35) 이슈로 가득하다.

키움은 지난 1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 계약을 맺었던 사실도 알려졌다. 강정호는 2년 전에 KBO리그 복귀를 추진하다 거센 반대에 부딪혀 뜻을 접은 바 있다.

강정호는 2016년 술을 마친 채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냈고, 운전자 바뀌기까지 시도했다. 조사과정에서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들렸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2017시즌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는 2018시즌 막판 복귀했지만 부진 끝에 2019년 8월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방출됐다. 이후

새 팀을 찾지 못했고 2020년 KBO리그 복귀를 준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강정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팬들은 더 많이 실망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강정호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충격도 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년 전 강정호가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자 상벌위원회를 열어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내렸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강정호는 2년 전 KBO리그 복귀 뜻을 이룰 수 없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강정호에 대한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강정.

한쪽에선 강정호를 향한 비난이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오에 대해 처벌을 받고, 징계를 소화한 만큼 복귀를 막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뒤 그라운드로 돌아온 선수들을 예로 들기도 한다.

뉴스스